

일상에서 재난안전의 감각을 익히자~!



김진영
한국방재협회 회장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재난과 관련한 영화는 찾아다니며 관람하거나 또는 반복해서 본다. 영화는 재난에 대비하는 감각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금년도 극장가의 흥행 키워드는 재난으로 볼 수 있다. 부산행, 터널, 판도라까지 흥행을 이어 갔다. ‘부산행’은 전국을 강타한 좀비바이러스와 부산행 KTX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사투를 다루었고, ‘터널’은 무너진 터널과 그 안에 갇힌 한 남자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영화화 했다. ‘판도라’는 대한민국을 덮친 지진과 원전 폭발이라는 초유의 재난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 준다.

재난사례를 들여다 보자.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다. 2009년 1월 15일 승무원을 포함 155명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한지 2분여 지났을 때 새떼와 충돌(Birds Strike)하고 엔진이 멈추는 위기에 처한다. 이때부터 기장 설리(본명 ‘체슬리 설렌버거’의 애칭)는 노련한 조종술과 동물적인 판단에 따라 허드슨 강에 비상 착수한다. 주변에 있던 선박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20여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된다.

설리는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도심거리를 산책하면서 건강도 다지고 주변 지형지물을 익히는 것을 생활화 한다.

허드슨 강의 불시착도 오랫동안 실제 체험으로 다져진 감각과 노하우에서 나온 순발력으로 볼 수 있다. 관제소와의 대화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연방교통안전국은 설리 기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이륙한 공항으로도 충분히 회항할 수 있었는데, 왜 무모하게 허드슨 강물 위에 비상착수 했죠?' 라고 묻는다. 설리는 '사고 직후 208초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승객들을 잘 보살피고 전원 무사하게 구조할 수 있을 것인가 만 생각했다.'라고 진술한다. 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 설리의 판단이 옳았다고 결론이 난다. 설리의 일상생활이 자신도 모르게 기장으로, 위기관리 전문가로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911 테러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발생한 최악의 재난이다. WTC(세계무역센터)가 2001년 9월 11일 항공기로 테러를 당한다. 모건스텐리사는 WTC건물 60여개 층을 임차한 투자회사다. 모건스텐리에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급박한 상황임에도 평정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산화(散華)한 '릭 레스콜라'라는 재난안전책임자가 있었다. '모두들 자리에 남아 있으라.'라는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자체 매뉴얼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의 대피를 유도하여 2,700여명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온다. 릭은 인원을 확인한 후 미처 나오지 못한 12명의 직원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다시 찾으러 들어간다. 그 와중에 건물이 붕괴되면서 잔해 속에 묻혀 유해조차 찾지 못한다. 릭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다. 1985년부터 모건스텐리의 재난안전요원으로 근무한다. 1988년 영국에서 발생한 팬암 항공기 테러를 보고 WTC도 테러공격에 취약하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용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93년에 WTC 지하층에서 실제 테러가 발생한다. 모건스텐리의 CEO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 릭은 힘을 받아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기업재난플랜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의 안전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모건스텐리를 찾아오는 방문객도 예외는 아니었다. 테러 다음날 모건스텐리는 테러의 한복판에 있었으면서도 24시간 이내에 영업을 재개한다.

모건스텐리의 이러한 일련의 위기대응 시나리오는 평소 재해복구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고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하는 등 기업재난경감활동을 꾸준히 펼친 결과라고 본다. 모건스텐리가 기적을 창출해 낸 비결이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경영연속성관리)이다.

우리들은 주변에 늘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재난안전은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재난대비와 예방은 당사자인 우리들의 몫으로 바라 봐야한다.

재난사례에서 보듯 큰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마운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마워! 사랑해! 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며 생을 마감한 분들의 말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며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의 책무를 다 하여야 한다.